

Happy New year

충청남도의회가 알려주는 ‘설’ 이모저모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설’이란?

음력 1월 1일인 ‘설’은 민족 대명절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는
전통생활관습입니다.

설날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웃어른께 세배를 하며,
떡국을 함께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설 음식 살펴보기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죠.
떡국의 재료인 긴 가래떡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그란 모양의 떡국떡은 과거 엽전을 닮아 재물운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예로부터 새해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음식이 바로 만두입니다.
생김새도 복 주머니와 비슷해 새해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 고기가 함께 섞여 있는 잡채는 행복과
풍요,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설날에 가족이
모여 잡채를 먹는 것은 다양한 성취를 이루고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갑진년 설날, 아이와 즐길 수 있는 설 맞이 문화체험

국립중앙과학관

여의주 대모험

과학관 중앙 거대 청룡 만나기,
신년 운세를 향한 여의주 대모험, 소원풍선 등

국립부여박물관

온가족이 즐기는 민속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굴렁쇠 체험 진행 예정

국립공주박물관

오감으로 느끼는 어린이 체험실

1,500년 전 무령왕과 왕비, 진묘수와 함께
사라진 왕과 왕비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